성공의 맥시멈은 본전건지기

(아가 6:1~14)

1.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공의 맥시멈은 본전건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성공의 맥시멈은 본전건지기'
먼저 말씀드리자면 1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2~3절은 신랑을 찾아나서는 신부의 노래이고, 4~9절은 신부를 그리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다시 10절부터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는 형식이 반복됩니다.

실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해해봅니다. 1957년에 캐롤 에인절이라는 소아과 의사가 1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2008년에 투자한 액수를 확인하니 4억 690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5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1만 달러이면 1,000만 원정도인데 이것이 5,0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1만 달러를 투자한 이유가 기이한데, 27살 청년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 27살 청년이 바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입니다. 온갖 경제전문가들을 놔두고 대체 27살 청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나 싶은데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식사라도 한 번 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을 정도이기에, 이 점심을 경매로 붙였는데 바로 며칠 전에 경매가 35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좋은 투자원칙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35억을 내고 점심을 먹지 않아도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

자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제1원칙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로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야 지킬 수 있지요. 교회가 무력해진 이유도 너무나 많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본래 십자가 생활화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오직 십자가 생활화 하나면 됩니다.
다시 워렌 버핏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1원칙이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잃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투자를 할 때에 손에 쥐고 있는 원금을 의미합니다. 본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원칙은 이것을 다시금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본전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에 몰두한다고 해서 정말로 본전을 잃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전을 건지면 됩니다. 본전을 건져야만 하는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전을 잃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크기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공백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전은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삶은 본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얻더라도 본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셔서 본전을 건져내면 이보다 큰 성공은 없습니다.
이 본전을 잃게 된 이유는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이 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성공은 본전 찾기입니다. 본래 이 세상의 삶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미 성공을 했기에 이 삶은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즉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삶의 모습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공을 생각합니다. 큰 예배당을 가진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본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최대 성공은 본전을 찾는 것이기에 워렌 버핏의 원칙대로라면 이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전을 잃었다면 어떻게든 본전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본전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거리를 두었다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술람미 여인에게서 생겨난 이유로 인해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솔로몬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전 찾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 옛날의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제2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새 인생의 출발점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과 멀어지면 본전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다시 그 본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앞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솔로몬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부부관계가 매듭지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솔로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솔로몬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라는 촉구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에 대한 관심을 되찾자 솔로몬이 자신의 본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협력하여 함께 솔로몬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전이신 하나님을 찾아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 다루었던 '현실'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던 시부모님이 찾아오셔서 한 달 동안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 살아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계실 동안에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그 사실이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시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실들을 현실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마음이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르는 사실들만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한 지금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며 내 목숨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은 정작 돈 문제나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 같은 것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써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여긴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마음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현실로 삼아서 살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세상을 현실로 삼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현실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2~3절의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 되시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잃었다고 여기지만 물리적 차원에서는 솔로몬은 항상 왕궁에 머물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서 잃어버린 솔로몬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솔로몬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현실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을 현실로 살고, 건강을 현실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형통한 것들을 현실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현실로 살아갈 때의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은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자주 비가 내리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또 비가 오네. 웬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지?'라고 말합니다. 혹은 비가 너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웬 비가 이렇게 안 내리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게 하시거나 안 내리게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고 계시느냐고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실로 여긴다면 어떤 원망이나 비판이나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회담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주장해오던 정치 신념대로 자신들의 손익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상회담을 하는 양국 지도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북미회담을 현실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서 '북미회담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혹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것은 곧 본전 찾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현실로 삼지 못한다는 것은 본전을 잃은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시나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6.13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길까 자유한국당이 이길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지 못했다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들은 다만 그 일하심을 존중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상의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현실로 살다보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가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비는 넓은 곳에 내리지만 비를 맞는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마음공백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전을 회복하느냐 마느냐에 성공이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공이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성공은 자녀를

서울대학에 보내면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 마주대하기 전에 나의 본전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이미 매듭지어진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돌렸을 때에 마음에서 솔로몬을 잃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성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출발점은 바로 본전입니다. 이 본전이신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워렌 버핏은 제1원칙으로 본전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원칙으로 제1원칙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모든 순간에 내 본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상태가 나의 본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본전을 잃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제1원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마음을 세상에 대해 죽게 하고 하나님을 현실로 채택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접하는 사실들이 마음에서 현실로 채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육체로 접하는 세상의 사실들에 대해 마음이 차단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타락하기 전의 아담이 가졌던 인간의 본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전이 회복된 상태야말로 최대의 성공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성공한 자로써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돕고 하나님의 뜻의 성공을 위한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것을 현실로 채택하려는 원죄적 체질이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모셔 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